

10월28일 월요일

13장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베드로의 사역에서 바울의 사역으로 그 중심을 옮겨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힘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국 이 사람은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어떤 일을 당하나요?

14장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본장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서의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역순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격려하면서 권면한 2가지는 무엇인가요?(21-23절)

15장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 교회가 성장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할례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 앎으시며 (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11절). 이에 야고보(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모스 9:11~12절을 인용하며 그 의견을 지지합니다.

16장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 사도의 계획은 성령님의 주도로 막히게 되고, 바울은 유럽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유럽 마게도냐(오늘날의 그리스)의 첫 도시 빌립보에 이르러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라고 하는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서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유럽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10월29일 화요일

17장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마게도냐의 다른 성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복음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베뢰아로(10절), 그리고 아덴으로(15절)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각 도시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 찾아보세요.

- 1) 데살로니가(5절):
- 2) 베뢰아(11절):
- 3) 아덴((17절):

18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덴(아테네)을 떠나 고린도에 온 바울은 귀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함께 하며, 말씀을 나누던 부부였는데(1-4절), 이들은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18절). 이 부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한 나 자신이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보세요.

19장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 일행은 3차 전도여행으로,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하고(18:23), 약속대로(18:21)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1절).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가르치고 권면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자들이 나타나자, 바울은 따르는 자들만을 데리고 1)어디에서, 2)몇 년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나요?

20장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몇 지역을 거쳐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지난 3년간 목회를 했던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만나고 작별의 시간을 가집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양떼를 살피고 돌보는 감독자의 직분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를 위하여, 또는 온 ()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10월30일 수요일

21장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3년이나 눈물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작별한 바울 사도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불들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결심을 굳힙니다(20:22-23).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많은 사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 대답하나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도 각오하였노라."

22장 내가 너(바울)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 사도는 천부장의 허락으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 동족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회심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유대인들 앞에서 전합니다. 바울의 회심이야기와 이방인을 향한 사명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22-23절)

23장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결박되어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마지막 10여 년은, 거의 죄수로서 보내는 감금 생활이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견딜 수 있게 하였고, 복음 증거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을까요? 순간마다 그에게 나타나시고 소망을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써 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진전이 없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운 삶의 소명을 받으며, 주님이 주신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4장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라까지 올라왔습니다(1절). 총독 벨릭스는 그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 예수 믿는 도를 듣기도 했지만,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10월31일 목요일

25장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바울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온지 두 해가 지나면서, 총독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되고, 새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였습니다(주후 59년). 신임 총독에게 문안차 아그립바 2세와 버니게가 올라와 며칠을 지내는 동안 베스도는 유대인 바울의 문제를 말하게 되었고, 흥미를 느낀 아그립바와 함께 바울의 말을 듣기로 함으로써, 또 한번의 복음전도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자리에서,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였나요?(25절)

26장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하더라

드디어 바울 사도는 아그립바 왕과 총독 베스도, 로마와 유대의 고관들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22장)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을 설명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께로 돌아오게 하고, ()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을 얻게 하리라."

27장 나는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행선한 배는 얼마 못 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고 하셨습니다. 배가 육지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까봐 모두 죽이려고 하였으나, 백부장의 명령으로 276명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28장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내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두 해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11월1일 금요일

로마서 1장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사

본장에서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백성을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셨는지 찾아 보세요.

- 1) 24절:
2) 26절:
3) 28절:

2장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본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더욱 율법을 범했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자부심의 근원인 할례의 문제였습니다(25-29절).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오히려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일들이 단순히 종교생활이 되지 않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장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본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하여,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나쁜 소식(bad news)을 전합니다. 그러나 21절부터 but now라는 말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good news)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에 있지 않고, ()으로만 가능합니다.(28절)

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본장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3절, 9-11절, 창세기 15:6)

10월2일 토요일

5장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나요?
1) 6절:
2) 8절:
3) 10절:

6장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5:20)에 대한 반론을 다룹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는가?"하는 문제입니다(1절).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교리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 죽은 성도(2절, 11절)들은 ()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12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에게 내 주지 않도록(13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7장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본장 14-25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또는 불신자인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본장의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21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22-23절)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도 때로는 이런 고민과 탄식에 휩싸이지 않나요?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7장의 마지막 부분은 독자들에게 패배주의적 느낌을 주는 듯 했지만, 결코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말하려는 결론은 8:1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복음이었고,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였음이라."

*율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던 죄인을, 은혜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